

- 사생결단 기도회 열두 번째 날 - 예수님의 멍에를 메게 하시는 성령님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16-17)

1.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 A.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 B. 성령 충만하다는 것
 - C.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 D. 성령께 소유된다는 것
2. 동시에,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길입니다.
 - A.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는 길입니다.
 - B.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 C. 죄와 싸워 이기는 길입니다.
 - D.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피하는 길입니다.
3. 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길입니다.
 - A.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 B.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 C.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 D.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길입니다.

4.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길입니다.
 - A. “나”만이 걸어갈 길입니다.
 - B. “나”만이 맛볼 은혜의 길입니다.
 - C. 나의 사명의 길입니다.
 - D. 나의 은사를 통해 쓰임받는 길입니다.
 - E. 하나님의 사람, 행복자의 길입니다.

인도에서 성자라는 이름을 듣던 선다싱의 전기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다. 한번은 인도 지방 히말라야 산맥 남쪽의 산길을 추운 겨울날 걸어갔다. 눈보라가 치고 날은 심히 추운데 눈길을 얼마 걸어가다 보니 어떤 사람이 길가에 넘어져서 쓰러져 있었다. 들쳐보니 손도 발도 얼굴도 다 얼었는데 가슴을 짚어 보니까 아직 온기가 있고 숨도 끊어지지 않았다. 마침 어떤 사람이 길가로 지나가길래 선다싱이 그 사람 보고 말했다.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면 아주 얼어 죽어버리겠으니 우리 이 사람을 함께 업고서 같이 가봅시다." "나도 죽게 되었는데 언제 다른 사람 돌아볼 새가 있습니까?" 지나가던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그냥 가버렸다. 선다싱은 차마 그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약한 몸이지만 거의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그 눈보라치는 산길을 걸어서 몇번이나 엎어지면서 그야말로 싸우며 그 고개를 넘어갔다. 그러나 얼어 죽지 아니하고 그 사람도 힘쓰고 자기도 힘쓰는 가운데 피차에 온기가 나서 두 사람이 겨우 생명을 보존해서 그 산을 거의 다 넘어갔다. 거의 다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하나 길가에 넘어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까 손도 얼고 발도 얼고 다 얼어서 아주 죽었는데 가만히 의복 입을 것을 보니 바로 얼마 전에 혼자 살겠다고 먼저 지나가던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던 선다싱은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했을 뿐더러 자기 생명도 구원했다.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혼자 살겠다고 지나갔던 다른 사람은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 한경직 예화 (출처: <https://lectio.tistory.com/558>)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

5.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육신적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 A. 주님의 멍에를 메게 되면 육신적 멍에를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 B. 육신적 멍에를 지고 있기 때문에, 수고와 무거움에 놀리게 되는 것입니다.
- C. 주님의 멍에를 지면 마음이 쉬을 얻게 됩니다.
- D.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길로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 E. 주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잘 메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 F. 사랑과 인내로 끊임없이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십니다.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3)